

제1장. CMTC 1차 (영성 훈련)

I. 선교정책

1. 2013년 선교 개요

- 1) 주제 :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To know Christ and to make Christ known)
- 2) 표어 :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 3) 성경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28:19,20)
- 4) 찬송 : 501장 “너 시온아”

2. 교회가 지향하는 선교

- 1) 복음 선교(By the Gospel)
 - (1) 복음을 전하는 선교
 - (2)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선교
- 2) 열방 선교(To the Nations)
 - (1) 새로운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
 - (2) 교회 개척 선교
- 3) 전교인 선교(With the Church)
 - (1) 전교인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선교
 - (2) 중단 없는 선교

3. CMTC 내용

- 1) CMTC 1차(영성 훈련) : ‘선교 정책’, ‘선교 사명’, ‘팀 사역’ 교육(2시간)
- 2) CMTC 2차(직무 훈련) : 직무별 교육(2시간)
- 3) 팀별 훈련
 - (1) 자체 훈련 : 12회 이상
 - (2) 영성 훈련 : 2회
 - (3) 기도 훈련 : 선교기도회 6회 이상
- 4) 개인 훈련
 - (1) 전도 훈련 : 1인 1명 전도
 - (2) 봉사 훈련 : 자원봉사 4시간 이상
 - (3) 성경 훈련 : 사도행전, 로마서 각 1독
 - (4) 언어 훈련 : 언어교육 6회 이상

4. CMTC 중점 사항

- 1) 복음적 선교사 양육
 - (1)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는 선교사(믿음)
 - (2)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선교사(자기부인)

- (2) 영적 지도력을 갖춘 선교사 양육
 - (1)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선교사(성령충만)
 - (2)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영혼사랑)
 - (3) 성령으로 하나 되고 겸손히 남을 섬기는 선교사(섬김)
- (3) 전도하는 선교사 양육
 - (1) 1 : 1 개인전도 능력을 갖춘 선교사(전도)
 - (2)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선교사(변화)

II. 선교 사명

본문 : 마태복음 28:18-20

1. 선교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19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보통 ‘선교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선교’(mission)라는 말은 헬라어로 ‘missio’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낸다’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10장에서 12명을 제자로 부르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 10:6)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마 10:16)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리와 같은 세상에,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곧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성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요 3:16). 또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요 14:26). 이처럼 삼위 하나님 역시 서로 세상에 보내고 보냄을 받았습시다. 파송하고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듯이, 삼위하나님이 세상에 파송을 하듯이, 이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국내든 국외든, 죄에 물든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곧 ‘선교’(missio)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보통 선교사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한다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 아주 훈련이 잘 된 사람만 하는 사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는 그런 해외선교사를 후방에서 물질과 기도로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외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는 좁게는 해외선교사를 말하지만, 넓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선교사입니다. 성도 각자는 세상 한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는 성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선택과목이 아니라 필수과목이기 때문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선교의 목적).

그렇다면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제자로 삼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결국 중심 명령은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어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자란 말 그대로 스승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역시 스승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목적 역시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즉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세례를 베푸는 목적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모든 죄가 용서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부를 때 처음부터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마10장을 보면 예수님은 12명의 사람을 택하면서 처음부터 ‘제자’라고 불렀습니다(마 10:1).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은 후에 제자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부족하였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처음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로, 즉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누구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자요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2)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적

물론 말로는 제자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실제로는 전혀 제자답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고 금방 세상으로, 죄악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20절)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세상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의 길, 즉 제자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한 번 전하고, 한 번 듣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하고 계속해서 듣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한다(선교의 자세).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선교를 해야 하겠습니까? 본문은 모든 민족에게, 즉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1:8에서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즉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은 선교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은 바로 이방인을 말합니다. 헬라인, 로마인을 말합니다. 그들을 유대인 자신들과 같은 제자로, 감히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유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런 사상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10장을 보면 베드로도 3번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통하여 책망과 권면을 받은 후에 비로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평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이방인은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이방인들조차도 사랑하셨습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도 이런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언약의 백성이라고, 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다고, 내가 제자라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입관이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강박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도 사랑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1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자 4명이 모두 이방인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야의 아내 모두 이방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이방인,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 나아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자세로 선교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선교의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하겠습니까?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선교의 사명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결국 선교의 사명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셔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선교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열방으로 나가는 것이, 제자로 삼는 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죄로 물들고 일그러진 이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의 계획을 잘 세우고, 선교사를 훈련시키며, 다양한 방법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선교를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본문의 마지막 마28장에 나오는 ‘함께’라는 말은 맨 처음 마1장에도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마태복음 처음 장과 마지막 장에 모두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내가 약하고 세상이 강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더디 증거 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강박하게 대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마10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것을 약속해주십니다. 제자들도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그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쓰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데 다 쏟아 부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데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힘과 권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4장을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때 마귀는 3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모두 권세와 능력에 관한 시험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보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능력을 보이라고 합니다. 또 자신에게 절하면 온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 권세와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하라고 하십니다. 철저히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데, 십자가를 지시는데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활하시어 온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비록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도 십자가의 능력이 선교를 이루는 참 능력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이길 세상적 방법이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힘이나 대단한 신적 능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힘과 권세는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 복음을, 십자가를 전할 때에,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선교의 사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으로 계속해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여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비록 쉬운 일이 아니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든 때도 있겠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이 귀한 사명을 나 같은 자에게 맡겨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해외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Ⅲ. 팀 선교

선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일이다. 선교는 우리가 항상 순종해야 하는 사역이다(마 28:19,20). 그런데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지만 동시에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이 말은 선교는 함께 사역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팀을 이룬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사역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1. 팀 사역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서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을 그의 제자로 부르셨다.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는 어부였고 마태는 세무공무원이었으며 시몬은 혁명가였다. 남쪽 유다 출신도 있었지만 북쪽 갈릴리 사람도 있었다. 결혼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나이에 차이가 있었다. 장차 예수님을 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직업과 생활환경,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무슨 말인가? 한 팀(Team)이 되기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을 한 팀으로 부르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선교는 팀으로 감당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마 10:1). 열두 제자를 한 팀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둘 씩 짝을 이루어 보내셨다(막 6:7). 팀을 구성하여 사역을 맡기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선교가 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혼자 하시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창 1:1,2 , 욥 26:13, 33:4, 시 104:30, 사 40:12,13, 44:24, 45:12, 요 1:3, 고전 8:6, 골 1:15~17). 구속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성부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속을 성취하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신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사역을 하신 것처럼 선교사역도 팀을 통해 하는 것이다. 선교는 결코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팀 사역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1)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에 순종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함께 모였다고 그 모임을 팀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목적을 위해 모여야 팀이라고 부를 수 있다. 팀 사역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팀에게는 분명한 사명(Mission)이 있어야 한다. 선교 팀은 좋은 팀워크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선교 팀은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에 부합해야 선교 팀이라 부를 수 있다. 즉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선교 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교 팀에 속한 팀원은 선교 팀의 사명, 즉 영혼구원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사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있다. 2)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선교명령을 이루려면 그럴 마음을 품었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영적상황, 성격, 달란트, 습관 등을 내려놓고 헌신해야 한다. 복음전파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훈련하는 것이 팀 사역이다.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훈련시간이 팀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이다. 사명이 분명하고 선교준비가 잘 되었어도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팀 사역이란 선교현장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역이다.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려놓지 않으면 영성훈련이나 사역 중에서 결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3)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선교는 개인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팀을 통해 감당하는 주님의 사역이다. 팀 사역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역이다. 선교사역은 결코 한 개인이나 한

팀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하는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

2. 예수님께서 우리를 팀으로 부르신 목적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한 팀으로 부르셨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기에 선교는 그 팀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거기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다.

3. 팀 사역을 하는 동안 나타나는 문제들

선교사역을 감당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선교를 하느냐가 사역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런데 선교를 위해 부름 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람에게 여전히 죄성이 있어 많은 문제들이 나온다. 그로 인해 팀워크나 팀의 영적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1) 팀장으로 인한 문제들

팀장이 어떤 사람이나 즉 믿음의 깊이와 영적 지도력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나에 따라 그 팀의 색깔과 사역하는 모습이 달라진다. 그만큼 팀장은 팀 사역에서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선교를 하는 동안 나타나는 문제들은 팀장의 영적 지도력에 따라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위기가 은혜가 될 수 있고 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팀장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1) 사명감이 결여된 팀장

선교에 대한 사명감과 분명한 사역목적 가지고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과 어쩔 수 없이 선교를 가야한다는 심정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팀장은 그 팀의 사역내용을 달라지게 만든다. 사명감이 있는 팀장과 그렇지 않은 팀장은 본인 스스로의 영성관리, 시간관리, 팀의 훈련 내용, 팀원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 팀 사역은 팀장의 영성에 따라 다양한 색깔이 나온다.

(2) 영적지도를 두려워하는 팀장

어떤 팀장은 팀장으로 세우신 주님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영적 지도를 잘 못하는 팀장이 있다. 특히 팀원 가운데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 자신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매우 힘들어한다. 목사나 장로가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끌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때에도 분명하게 영적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팀장으로 세우신 목적을 감당해야 한다.

(3) 영적지도에 지혜롭지 못한 팀장

팀장은 팀원 간에 감정이 노출되었을 때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두 사람의 말을 다 듣고 기도하며 판단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말만 들으면 팀원의 화목과 신뢰가 깨지게 된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항상 그랬어도 매번 들어주고 왜 그랬는지를 살피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팀을 이끌어가야 한다.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팀에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영적지도를 해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팀장은 친한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듣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팀장은 자기 말을 잘 듣거나 친한 사람과만 사역을 나누지 말고 팀원 전체와 나누고 교제해야 한다. 또한 팀장의 권위를 내세우며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팀원에게 강요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4) 사역 중에 나타나는 문제

아침경건회나 저녁평가를 가질 때 지나치게 길게 설교하거나 모인 목적과 관계없는 것들을 말함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사역 중에 드러난 문제가 있을 때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 우유부단해서도 안 된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복음적으로 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역 중에 팀의 실수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팀원들과 나누고 회개하기보다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며 문제를 덮으려고만 하는 것은 영적지도가 아니다. 그럴 경우 팀장이 팀원들로부터 영적인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팀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그러므로 팀장은 실수나 어떤 문제를 감추거나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성령님께 내어놓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팀원들과 함께 더욱 복음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5) 선교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문제

팀장이 선교지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갖고 팀원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적실한 정보를 통해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지혜롭게 준비하였을 때 팀원들이 신뢰하게 되고 사역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팀장의 정보부족으로 선교현장에서 필요한 전도물품이나 다른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팀장에 대한 신뢰와 사역의 효과, 팀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

팀 사역에 있어 팀장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러기에 팀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이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람이 아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팀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2) 팀원으로 인한 문제들

한 팀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나타나는 문제는 팀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팀원들로 인해 서도 나타난다. 그러면 팀원들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팀장의 영적 지도력과 관련된 문제

팀장을 영적으로 그리고 그의 지도력을 신뢰하지 못할 때 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팀원들은 팀장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팀장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롬 13:1~2). 팀원 중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 팀장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의 말에 팀장이 꿈쩍 못하고 팀원들도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팀원들은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팀장을 따라야 한다. 그래야 팀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팀원 가운데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가 있을 경우 발언을 할 때 신중해야하고 팀장에게 할 말이 있거나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전체 앞에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 해 줌으로 언제나 팀장의 영적지도력을

세워줘야 한다. 간혹 팀원 가운데 팀장의 지도력을 믿지 못하여 나서는 사람이 있는데 팀장의 권위를 세워줄 줄 아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이다.

(2) 음식문제

선교지에서 의외로 음식문제로 인한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 과일을 언제 사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얼마나 먹을 것이냐 등 음식문제로 인한 갈등이 의외로 많다. 먹을 것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한다. 그것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아야 한다.

(3) 숙소를 같이 쓸 때 나타나는 문제

숙소를 같이 쓸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갈등도 많다.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누가 먼저 씻을 것인지, 잠을 잘 때 에어컨을 켤 것인지 끌 것인지, 잠들기 전에 묵상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어야 한다.

(4) 사역을 하는 도중에 나타나는 문제

사역을 하는 도중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감정이 표출이 되었을 때 복음의 원리를 따라 자신의 마음과 그 상황을 풀어가야 한다. 특히 선교지에 도착하여 사흘 정도 지나면 매우 피곤한 상태가 되고 긴장이 풀린다. 이때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시기나 쌓인 감정으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역을 평가 절하할 수 있다. 그것보다는 '000하는 것이 더 좋다'는 식으로 평가 절하할 수 있다. 특히 자신과 맞지 않은 사람이나 선교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고 팀 훈련에도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사역 중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다른 팀원들의 내재적 불만이 크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더욱 품어주어야 한다. 그 사람을 바로 세운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리고 싶은 마음을 말쓰를 의지하며 억눌러야 팀이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가까이에 있는 팀원을 품을 줄 알아야 진정으로 그 민족을 품는 사역을 할 수 있다. 또한 끼리끼리 어울리려면 전체 팀워크를 깨뜨릴 수 있다. 그리고 사역평가회를 마치고 자유로운 시간이 되었을 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세상적인 이야기나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기 쉬운데 주의해야 한다.

(5) 사역을 마친 후에 나타나는 문제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선교를 다녀온 후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는 성도들이 많다. 선교를 다녀 온 후에 사역을 하면서 보고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때 상대방은 심한 상처를 받는다. 그로 인해 믿음의 교제가 깨진다. 같은 교구에 있지만 다시는 같이 가고 싶지 않고 가더라도 마음의 거리가 생긴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상실된다. 다녀온 후에 자기 입술을 지키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시험이 외부에서 왔을 때는 팀이 영적으로 긴장하며 하나가 되지만 시험이 내부에서 오면 영적인 긴장이 무너지며 팀이 깨지기 쉽다. 겉으로는 유지되고 있어도 마음으로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5. 팀 사역 중에 나타난 문제의 해결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확실한 것은 드러난 문제보다 그것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해결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1) 복음의 은혜를 따라 풀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는 복음이 주는 은혜를 따라 해결해야 한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따라 풀어나가야 한다. 팀 사역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해결방법도 영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 은혜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팀장을 비롯한 모든 팀원을 복음 위에 바로 세우는 것이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다(눅 22:54~60).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요 20:25). 사명을 잃고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요 21:1~23). 그런데도 예수님은 실패에 대한 지적과 정죄가 아니라 품고 안으시고 그들을 사역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하려면 팀원 모두가 복음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 은혜가 있으면 사람을 품을 수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2) 자신을 채우는 훈련이 아니라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

팀 사역을 하는 동안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신을 비워야 한다. 우리는 선교를 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준비하려고 한다. 영적인 자세, 복음에 대한 이해, 선교에 필요한 언어, 복음을 잘 전달하려는 마음 등 자신을 채우려고 한다. 자신을 잘 채우면 선교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교는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비우는 것이 선교이다(요 14:26).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복음적인 선교는 비워야 할 수 있다. 선교는 섬기는 것이다. 부르시고 명령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팀원을 섬기는 것이다. 선교지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셨다(빌 2:5,6).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3) 팀의 문제는 사역을 하는 도중이 아니라 영성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끝으로 영성훈련이 팀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팀 사역을 하는 동안 나타나는 인간관계 문제는 선교지가 아니라 영성훈련을 통해 드러나고 해결되어야 한다. 사역지에서는 사역을 감당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팀이 훈련 도중에 나타나는 관계문제를 소홀히 여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팀장은 팀원들의 영적인 상황과 성품, 습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영적 지도를 해야 한다. 이때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구지도목사나 선교위원회의 도움을 구해서 해결해야 한다. 해결이 쉽지 않지만 해결하지 않으면 팀장의 영적 지도력에 문제가 생기고 마귀는 이 틈을 이용하여 사역 중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한다. 따라서 팀원들은 영성훈련을 하는 동안 의례적인 이야기나 적당한 관계만 유지하지 말고 한 팀으로 부르신 성령 안에서 자신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팀장은 영성훈련 때에 팀원 간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성령님께서 팀을 복음적으로 세워 가시는 기회라고 믿고 모든 팀

원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고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영성훈련과 사역 중에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선교를 다녀온 후 성도 간의 교제와 교회생활에 영적인 영향을 미친다. 팀 사역의 결과가 영적침체나 교제의 단절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

결론

복음적인 팀 사역은 그 팀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을 이루는 사역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팀의 영성훈련은 팀원들에게 영적인 도전과 은혜를 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기계적인 훈련시간이 되지 않도록 팀장과 팀원 모두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 팀 사역이 팀장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지만 그렇다고 팀장만 책임이 있고 팀원은 없는 것이 아니다. 팀장과 팀원 모두에게 자신들의 팀이 어떤 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팀 훈련 때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떤 팀을 보면 선교사역을 거의 마칠 때쯤에서야 비로써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되어 아쉬움을 갖게 하는데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선교를 떠나기 전 팀 훈련 때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팀 사역의 결과는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팀원 모두에게 영적 기쁨을 주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한 팀으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묻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 아래 엎드려야 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롬 12:18)

제2장. CMTC 2차 (직무 훈련)

I. 직무 훈련

1 팀장

- 팀장의 역할 : 팀장은 선교팀을 구성하고 선교팀의 모든 영성훈련과 선교사역을 인도한다. 아울러 선교팀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무와 함께 지도한다.

1. 영적 지도의 원리

1) 자기부인

영적 지도자의 기초는 자기 부인이다.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진정한 지도력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람은 자기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에서만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범위를 넘어서 과욕을 부리면 이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비로소 영적 지도력을 발휘 할 수 있다.

2) 성령의 능력

영적 지도자는 성령을 철저히 의지해야 한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인격이나 능력으로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영향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

3) 섬김

영적 지도자는 ‘종의 원리’로 사역하는 자이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야 한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를 따를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우리를 섬겼다. 따라서 영적 지도자는 섬기는 자이다.

마가복음 10:43-44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 영적 지도의 실제

1) 팀훈련 인도법

- (1) 지난 주간의 삶을 나눈다(10분).
- (2) ‘개인 훈련’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5분).
- (3) 각 직무별 담당자가 잘 담당하고 있는지 점검한다(5분).
- (4) 경건회를 인도한다(20분).

* 순서 : 찬송 → 성경읽기 → 묵상나눔 → 기도회 → 대표기도 및 주기도문

- (5) 언어 훈련을 한다(20분).

- (6) 선교구호를 제창하고 광고를 한다.

2) 경건회 인도요령

- (1) 겸손히 인도하고 일방적으로 교훈하지 않는다.
- (2) 믿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기회로 삼는다.

- (3) 각자 말씀으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도록 한다.
 - (4) 각자 나누는 것이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 (5) 결론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 (6)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 되도록 한다.
- 3) 선교팀 인도의 원리
- (1) 교회 선교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교정책에 맞게 팀을 인도한다.
 - (2) 인간적(세상적) 지도력이 아니라 영적(신앙적) 지도력으로 팀을 인도한다.

인간적 지도력	영적 지도력
자기만족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
사람(자신)을 드러냄	하나님을 드러냄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림	하나님의 뜻을 찾음
개인의 능력이 강조 됨	자기를 부인함
자신의 방법을 창조해 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찾음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려함	하나님께 복종하여 타인을 섬기려함
개인 사정이 동기가 됨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됨
독립적임	성령을 의지함

3. 선교팀 구성 및 훈련

1) 팀 구성

- (1) 팀 구성 원칙
 - ① 교구 팀 : 팀장을 선임하고 팀원(8명)을 구성한 후 신청한다.
 - ② 교회학교(중, 고, 대, 청1, 청2) 및 특수부서(에바다, 복지관, 교회직원) 팀 : 교구 팀 구성과 동일하다.
 - ③ 찬양대 및 기타 부서 팀 : 교구에 편입하여 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 ④ 타 교회 성도 : 타 교회 성도는 총현교회 성도와 함께 팀을 구성하도록 한다.
- (2) 팀장 선임
 - ① 팀장은 팀을 영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준비 된 자 중에서 선정하되, 최종적으로는 선교위원회에서 승인한다.
 - ② 교구 및 부서에서는 안수집사, 권사 및 남녀부감을 대상으로 선임하여 준비한다.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를 예비 팀장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3) 팀원 구성
 - ① 본교회 등록 교인으로 공 집회 출석, 헌금, 전도,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다(교구장, 부서장 승인).
 - ② 해외여행에 법적, 신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 ③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고 선교를 이해하며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 ④ 다른 팀으로 다녀온 후 2개월 이상의 훈련기간(최소 20회)이 확보된 사람이다.
타 교회 성도로서 단기선교 팀에 동참하려는 사람은 소속교회 당회장 추천서와 서약서를 제출하고, 기타 훈련 및 비용 등은 본교회 교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4) 팀 신청(선 훈련, 후 지원)
 - ① 해당연도 CMTC2차를 수료한 사람으로 팀을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2차 심사

전까지 CMTC2차를 수료하는 조건으로 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1차 심사가 완료된 팀은 3차 심사 전에 CMTC2차를 수료해야 한다.

③ 팀원은 8명이상 1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최소 인원(7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선교위원장 승인 필요).

④ 2차 심사 이후의 팀원 추가는 불가능 하다.

⑤ 사역기간은 9박 10일을 원칙으로 한다.

선교지와 항공편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중. 고. 대. 청년1부, 청년2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선교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팀 신청 시 교구장 또는 부서장의 확인이 필요하고, 성수주일을 위해 토요일 출발 및 월요일 귀국은 가능한 금한다.

(5) 사역 국가 및 지역 설정

① 팀 신청 시 사역국가를 정할 수 있고 1차 심사에 팀장과 총무가 참여하여 선교위원회와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1차 추천 나라(12개국) : 몽골, 내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

* 2차 추천 나라(6개국) : 미얀마, 네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몰도바

* 기타 : 사안별로 선교위원회와 협의한다.

② 선호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월별로 팀 수를 제한한다.

(6) 팀 신청, 훈련, 심사, 평가, 점검 등의 일정

면담 및 평가 일정	CMTC 1차	팀 신청	1차 심사	CMTC 2차	2차심사 (영성)	3차심사 (언어)	4차 심사
실시시기	팀 신청 전	출발 14주전	출발 12주전	1차심사 후 3차심사 전	출발 7주전	출발 4주전	출발 2주전
참석범위			팀장, 총무	팀원 전원	팀원 전원	팀원 전원	팀원 전원
영성훈련			1차심사 후 2차심사 전 (교회)		재심은 재심 전까지 추가 실시	2차심사 후 4차심사 전 (기도원)	

2) 팀 훈련

(1) 필수 훈련 내용

① CMTC : 1차, 2차

② 팀 훈련 : 총 20회(팀자체훈련 12회, 선교기도회 6회, 영성훈련 2회) 이상의 훈련을 실시한다. 팀자체훈련 및 영성훈련은 1시간 이상 한다.

주일에 실시하는 팀자체훈련은 찬양예배 후에만 할 수 있다.

* 영성훈련 1차 : 1차 심사 후, 교회(인도 : 지도목사)

* 영성훈련 2차 : 2차 심사 후 4차 심사 전, 기도원(인도 : 지도목사)

③ 언어 훈련 : 12회 이상 교육에 참석한다(6회 이상 의무).

현지어 찬양 2곡 이상을 외운다.

④ 봉사 훈련 : 자원 봉사에 4시간 이상 참여한다(선교위원회에서 확인).

⑤ 전도 훈련 : 1인 1명을 전도(2차 심사 전까지 교회 정착기준)하되, 출발일 기준으로 과거 1년 내에 전도한 것도 인정한다(선교위원회에서 확인).

⑥ 기도 훈련 : 주일 선교기도회에 사역 전 6회, 사역 후 3회 이상 참석한다.

영성훈련 1차 때 기도원집회에도 참석한다.

- ⑦ 성경 훈련 :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각 1독을 하되, 2차 심사 전까지 사도행전 1독을, 4차 심사 전까지 로마서 1독을 한다.

(2) 기타 훈련 내용

- ① 금요 집회 : 매주 금요일집회에 참석하여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한다.
- ② 지역 연구 : 사역지에 대한 일반적 상황과 영적인 상황을 숙지한다.
- ③ 안전 교육 : 팀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현지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④ 선교 구호 : 팀 훈련 시마다 선교구호 제창한다.
- ⑤ 팀 훈련시마다 출석부와 훈련일지를 작성한다.

구 분	횟 수	비 고
CMTC 1차	1일	영성 훈련(2시간), 12월 ~ 10월 매 첫째 주일 실시
CMTC 2차	1일	직무별 훈련(2시간), 12월 ~ 10월 매 둘째 주일 실시
팀 훈련	20회 이상	영성훈련 : 2회, 지도목사 주일 선교기도회 : 6회 이상 팀 자체훈련 : 12회 이상
언어훈련	12회	매월 연속적으로 실시, 6회 이상
사도행전, 로마서	각 1독	사도행전 개인별 1독, 2차 심사 전까지 로마서 개인별 1독, 4차 심사 전까지
귀국 후 기도회	3회	주일 4시 선교기도회, 3회 이상
귀국 보고회	1회	사역보고, 금요일집회 시
귀국 후 평가회	1회	서기, 회계 또는 지명자, 주일 정해진 시간에

4. 선교팀 심사 내용

1) 1차 심사(전반적 점검, 진행분과 담당)

- (1) 일시 : 팀 신청 2주 후 또는 출발 12주 전에 실시
- (2) 대상자 : 팀장, 총무
- (3) 지참물 : 팀신청서 1부, 훈련및사역계획서 1부, 기도동역자 명단 1부(심사 3일전 제출)
팀장, 총무, 서기, 회계의 E-Mail주소 제출 : 각종 공지사항 및 관련 양식 송부
- (4) 심사 내용
 - ① 팀장은 팀 훈련을 이끌고 나갈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인가?
 - ② 팀원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③ 사역기간과 사역지 선정은 교회 방침에 맞게 되었는가?
 - ④ 팀 훈련기간은 확보되었는가?(20회 이상)
 - ⑤ 팀 훈련계획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 ⑥ 2차 심사(영성)와 3차 심사(언어)시 확인사항을 팀장이 숙지하고 있고, 1주 전까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 가능한가?

2) 2차 심사(영성 점검, 관리분과 담당)

- (1) 일시 : 출발 7주 전, 교역자가 실시
- (2) 대상자 : 전원
- (3) 2차 심사 1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 ① 2차 영성훈련일지 : 1차 심사 후 즉시 기도원에서 실시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기

록하며 담당 교역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다.

재심팀은 별도로 영성훈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재심 영성훈련일지'를 제출한다.

② 기타훈련일지는 2차심사 전까지 기록한 것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4차 심사 전까지 제출한다.

③ 전도결신자 출석확인 : 인도자가 출석 및 정착(2회 이상)을 확인하여 서명한다.
1명 전도는 반드시 2차 심사 이전에 전원이 완료해야 하고, 1명 미전도 시에는 1주 후에 재심사를 받는다. 2명 이상 미전도 시에는 팀이 해체된다.
1인 1명 전도 확인은 출발일 기준 과거 1년간으로 적용한다.

(4) 일정 게시와 심사 방법

① 일정 게시 : 선교관 게시판과 선교위원회 사무실에 게시 및 팀별 통지한다.

2차 및 3차 심사를 위하여 팀별로 관리담당자(관리분과 담당)를 배정하고 관리담당자를 통하여 제반 사항의 안내를 받는다.

② 심사 방법 : 각 평가 결과를 상/중/하로 구분하고 1개 항목이라도 '하'평가된 팀원은 개인적으로 사역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단, 최종 평가는 선교위원회에서 한다.

(5) 심사 내용

① 금요집회 및 공예배 출석

② 주일 선교기도회

③ 헌금 생활

④ 1인 1명 전도 및 정착

⑤ 사도행전 및 로마서 1독

⑥ 영적 준비 상태

-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가?
- 복음 위에 서 있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 교회방향에 순종하여 선교하려고 하는가?
- 팀 훈련을 철저히 하고 팀원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가?

3) 3차 심사(언어 및 행정 점검, 관리분과 담당)

(1) 일시 : 출발 4주 전, 선교위원회 소속 장로가 실시

(2) 대상자 : 전원

(3) 심사 내용

① 현지 언어 구사능력(필수 25개 문항 암기)

② 전도시범 : 팀원이 전도인과 현지인 역을 번갈아서 전도시범을 보인다.
필수 문항 외에 권장 언어를 활용하여 전도시범을 보인다.

③ 현지어 찬양 : 2곡을 암송하는지 점검한다.

(4) 3차 심사(언어, 행정) 1주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

① 지원서 : 18세 이하 부모 동의서 / 70세 이상 자녀 동의서 / 교구장 서명 날인

② 건강 진단서(출발 일 기준 1년 전까지 발행분 유효-복사본 제출)

③ 릴레이 금식기도표

④ 자원봉사 확인서(선교위원회 확인)

⑤ 워크북 1권 : 선교위원회 양식을 따라 한다. 교회 인쇄실 이용이 가능하다.

4) 4차 심사(최종 점검, 관리분과 담당)

(1) 일시 : 출발 2주 전

(2) 대상자 : 전원

(3) 점검 내용

- ① 전도 결신자의 양육 상태 재확인
- ② 팀원의 훈련 이수 및 서류 재확인
- ③ 현지 언어 숙지 재확인(팀별 1~2명)
- ④ 항공기 예약 및 명단
- ⑤ 현지 사역지 이동 및 숙박, 차량 관련 준비사항
- ⑥ 준비비 및 사역비 수령 및 사용 방법 안내
- ⑦ 파송 전 주의사항 및 현지에서의 주의사항 전달
- ⑧ 단기선교 숙지사항 및 직무별 사항
- ⑨ 미비 사유 및 대책 안내

미비 사항에 대한 조건부 대책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한다.

‘미비사항기록장’에 팀장, 총무 또는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⑩ 훈련경과 보고 : ‘팀훈련출석부’와 ‘팀훈련일지’를 참고하여 총무가 보고한다.

5. 선교팀 사역 보고 및 평가

1) 귀국 보고

(1) 일시 : 귀국 주간의 금요일집회, 오후 6시 20분까지 팀원 모두 본당 지정석에 착석한다.

(2) 내용 : 팀원 중에 보고자 1명이 2분 내에 보고한다.

사역지에서 경험한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보고한다.

2) 사역 평가(진행분과 담당)

(1) 일시 : 귀국 보고를 한 후 주일에 실시한다(찬양위원회에서 정한 시간).

(2) 참석 대상 : 서기, 회계 또는 선교위원회에서 지명한 팀원

(3) 지참 서류

- ① 소감문 : 귀국 전, 팀원 모두 작성(A4 용지 크기)
- ② 영문지도 : 사역지 이동 경로 표시(A4 용지 크기)
- ③ 사후평가 설문지(팀장, 서기, 회계 각각 작성)
- ④ 서기용 워크북

3) 사역 보고서(지원분과 담당)

(1) 회계보고 : 선교위원회에서 E-Mail로 보내 준 양식(선교위원회에서 USB로 다운받은 양식)에 따라 2부를 작성한다.

사역 후 2주내 감사위원회에 회계보고서 2부를 제출 한다.

(2) 서기보고 : 선교위원회에서 E-Mail로 보내 준 양식(선교위원회에서 USB로 다운받은 양식)에 따라 2부를 작성한다.

사역 후 2주내 선교위원회에 서기보고서 1부를 E-Mail(cmtc77@yahoo.co.kr)로 보낸다.

서기보고서 1부는 감사위원회가 발행한 ‘회계보고 접수증’ 및 ‘주일헌금 접수증’을 첨부하여 선교위원회에 제출한다.

6. 선교팀 파송 과정

1) 파송

(1) 금요집회 파송식

- ① 파송 전 주에 실시하는 금요집회 파송식에 참석하여야 한다.
- ② 예배 1시간 전까지 나와 파송자 명찰을 착용하고 선교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파송식 연습을 실시한다.

(2) 파송 예배

- ① 당일 항공기 시각 6시간 전(오후) 또는 5시간 전(오전)에 실시한다.
- ② 자체 기도회 : 예배 1시간 전까지 와서 최종점검을 하고 기도로 준비한다.
새벽 출발팀은 새벽기도회로 대체하고, 본당에 지정된 좌석에 앉도록 한다.
- ③ 기도동역자 3명 이상 참석하도록 한다(p 쪽 참조).
- ④ 파송예배 일정 및 시간 등을 팀장 및 총무에게 사전 연락한다(진행분과 담당).
- ⑤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음식물이나 물품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출발 및 귀국

(1) 출발

- ① 교회에서 항공기 출발 5시간 전(단, 새벽의 경우 4시간 전)에 출발하고 공항까지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차편을 이용한다.
- ② 현지도착 보고는 생략하고, 긴급한 상황 이외는 전화하지 않는다.
- ③ 사전 예약 후 출발하는 팀은 호텔 전화번호 및 운전기사 휴대폰번호를 선교위원회에 보고한다.

(2) 귀국

- ① 귀국 시에는 공항에서 팀별로 해산하되, 단 금요일에 도착하여 금요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팀은 교회로 돌아온다.
- ② 귀국 교통편은 리무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콜밴 이용은 자제한다. 단, 귀국 시간대가 심야 일 경우 콜밴을 이용하도록 하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전 예약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한다(선교위원회 앞 사전 확인 요).
- ③ 귀국보고는 인천공항에 도착 후 빠른 시간 내에 선교위원회 지도목사에게 한다.

7. 선교 구호

- 1) 기도와 말씀으로 선교하자.
- 2)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자.
- 3) 믿음과 순종으로 선교하자.
- 4)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선교하자.
- 5) 겸손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선교하자
- 6) 낮에는 복음전파 밤에는 영적무장
- 7)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사다. 아멘.

* 팀 훈련 및 현지 매일 경건회 및 평가회 시에 팀장이 선창하고 팀원이 복창한다.

2 총무

- 총무의 역할 : 총무는 팀장과 협력하여 팀의 모든 실무를 지도, 진행한다.

1. 3개월 전

1) 팀 관리

- (1) 기초 자료(성명, 교적번호, 소속, 직분, 여권번호, 주소, 전화번호, CMTC 수료, 전도, 자원봉사)를 관리한다.
CMTC 수료는 선교위원회 훈련분과에서 확인한다.
- (2) 팀장의 업무 분담에 따라 각 담당자의 업무를 지도한다.
- (3) 출석을 관리한다(금요집회, 주일선교기도회, 영성훈련 및 팀훈련 등).
- (4) 팀원의 건강, 해외여행 결격사항 여부를 확인한다.
- (5)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 (6) 팀장 부재 시 팀 훈련을 인도한다.

2) 사역준비

- (1) 현지정보를 수집하여 사역 계획서 및 훈련 계획서를 작성한다.
- (2) 사역 계획서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예) 어린이 사역(현지어 어린이 찬양 및 율동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3) 행정사항

- (1) 1차 심사 준비 (사역계획서 및 훈련계획서, 기도동역자 명단)
- (2) 1차 심사 후 2차 (영성심사), 3차(언어, 행정심사), 4차 심사일정을 확인

4) 여행 관련업무

- (1) 여권 준비(비자 업무 등을 위해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 여권 훼손여부 확인)
- (2) 여권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3) 항공기 티켓 예약을 확인한다(인원, 영문이름 확인).

2. 2개월 전

1) 사역준비 : 사역을 계획하여 실제적인 사역 준비를 실시해야 한다.

- (1) 팀원들에게 자료(전도지, 언어 등)와 현지정보를 제공하여 팀원들이 준비도록 지도한다.
- (2) 사역의 세부 계획(축호전도, 노방전도, 어린이사역, 찬양 등)에 따른 담당자를 선정하고 훈련한다.

예) 축호전도 : 접근요령 및 적절한 언어, 필요한 전도지 사용방법 등
찬양 : 찬양선곡, 현지어 제작(지정된 찬양곡 범위 내)

2) 현지일정 수립

- (1) 이전 사역 보고서, 대사관, 여행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한다.
- (2) 정보를 바탕으로 사역지와 사역내용 등의 세부 일정을 작성한다.

예) XX 지역 사역계획

OO 마을 : 축호 및 노방전도 4시간 후 이동

△△마을 : 축호 및 노방전도 2시간, 학교 방문전도 2시간

3) 행정사항

- (1) 2, 3차 심사준비
- (2) 전도 결신자 명단(전도 결신자 출석확인 포함), 자원봉사확인서, 건강진단서 등 각종 제출서류 확인
- 4) 여행업무
 - (1) 항공기 티켓예약 및 비자 발급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한다.
 - (2) 예방접종이 필요 할 경우 시기에 맞춰 실시한다(말라리아 등).

3. 1개월 전

- 1) 현지일정 확정 : 사역기간 전체 세부 일정을 작성한다.
 예) XXX국가 사역 계획
 - 14시 30분 공항 도착
 - OO호텔로 이동(승합차 이용 1대 예상 요금 15달러)
 - 16시 30분 호텔 도착(호텔 예상요금 1인 10달러)
 - 17시 30분 도착 예배, 오리엔테이션
 - 19시 저녁 식사
 - 20시 30분 평가회
- 2) 사역점검 : 사역준비 내용을 최종적으로 점검한다.
 (1) 각 사역별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전도실습을 통해 점검한다.
 (2) 현지어로 전도가 가능하도록 언어가 준비되었는지 점검한다.
- 3) 행정사항
 - (1) 여권, 비자, 항공기티켓 등을 사무국에서 수령한다(영문성명 확인).
 - (2) 출국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여권과 비자는 분실에 대비 3부 복사하여 분리보관)한다.
 - (3) 전도지, 의약품, 준비비, 사역비 등을 수령한다.
- 4) 차량 및 숙소 섭외

4. 출(입)국 시

- 1) 출.입국 수속에 필요한 여권, 항공기 티켓, 현지입국 신고서 등을 점검한다.
- 2) 출.입국 시 사역비는 분산하여 보관한다.
- 3) 개인물품 중 핸드캐리에 부적절한 물품 유.무를 확인한다.
 * 개정된 항공기 탑승시 기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가위, 칼 등) 및 제한된 액체류 등 주의
- 4) 1인 수하물 무게는 기내가방 범위 내에서 하고 필요시 공동가방1개를 추가 할 수 있다.
- 5) 출.입국 시 팀원의 개별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한다.
- 6) 기타 현지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점검하여 대비한다.
- 7) 초기 사역비만 공항에서 환전한다.

5. 현지에서

- 1) 매일 이루어질 사역 내용과 그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한다.
 (1) 전날 저녁 각 담당자에게 다음 날 할 일을 설명하고 당일 아침에 확인한다.
 (2) 숙소 섭외 및 사역 장소를 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팀원의 건강상태, 영적상태를 파악하여 팀장에게 보고한다.

(4) 사역 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점검한다.

2) 사역기간 중 확인 사항

(1) 현지 도착보고는 하지 않고 긴급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선교위원회 지도목사에게 보고한다.

* 연락방법 :

보고는 가능하면 한국 근무시간(09:00~18:00)을 고려하여 연락한다.

선교위원회 직통전화 : T.+82-2-567-9544,

(2) 귀국보고는 인천공항에 도착 후 선교위원회로 한다.

(3) 매일 그리고 이동시마다 여권과 항공기티켓의 분실여부를 확인한다.

(4) 귀국 항공편의 예약상태를 확인한다.

6. 기타

1) 귀국보고 : 귀국 후 첫째 금요찬양집회에 참석한다.

2) 사역평가회 : 귀국 후 첫째 주일에 실시한다(회계 또는 선교위원회에서 지명한 사람 참석).

3 서기

● 총무의 역할 :

- ① 팀훈련 중 : 각종 양식의 기록 및 유지(팀훈련출석부, 팀훈련일지, 팀영성훈련일지 등)
- ② 팀사역 중 : 일일 사역의 기록 및 유지
- ③ 사역 후 : 사역보고서 1부, 선교위원회에서 제공한 파일(USB / E-Mail) 포함

1. 사역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 보고서 양식 : 선교위원회에서 제공한 양식(USB / E-Mail)을 사용하고, 사역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미리 사역보고서 양식을 출력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 2) 제출 기한 : 귀국 후 2주 이내에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 사역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역 사역보고서 1부는 감사위원회 회계보고서 접수증 및 주일헌금 접수증과 함께, 팀장의 서명을 받아 선교위원회 지원분과에 제출한다. 1부는 선교위원회에 E-Mail로 제출한다. (E-Mail주소 : cmtc77@yahoo.co.kr).
- 3) 사역내용은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남겨둔다.

2. 각종 양식의 기록 및 유지

- 1) 선교위원회 해당 양식(팀훈련출석부, 팀훈련일지, 팀영성훈련일지 등)을 사용하여 각 심사(2차, 3차, 4차 및 재심) 실시 일주일 전까지 내용을 기입하고 팀장 확인을 받아서 선교위원회 관리분과에 제출한다.
- 2) 팀훈련 출석부 : 선교기도회 참석(6회), 지도목사 영성훈련(2회), 자체 팀훈련(12회) 등을 CMTC 카드에 기록하고 총무와 팀장의 확인 서명을 받으며, 팀훈련 일지와 일치하게 기록한다. 참석자는 참석 날짜를 적고 불참자는 공란으로 둔다.
- 3) 팀훈련일지 : 팀모임 때마다 교육 및 훈련 내용을 기입하고 팀장의 서명을 받는다.
- 4) 팀영성훈련일지 : 지도목사에 의하여 팀 영성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영성훈련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지도목사의 서명을 받는다.

4 회 계

- 회계의 역할 : 선교위원회의 방침과 팀장의 지시를 따라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1. 회계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 1) Excel sheet의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작성한다. 결과 값은 자동으로 산출된다.
- 2) 반드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해당 Excel sheet에 작성하여야 한다.

순위	작성내용
1	단기선교 사역비 지급내역
2	환전 외화입 · 출금
3	준비비 사용내역
4	현지 사역비 사용내역
5	단기선교 지출내역 종합표(자동작성됨)
6	과다 지출 사유서

- 3) 모든 일자는“-”를 사용하여“2013-2-15”의 형식으로 입력한다.
- 4) 통화의 표시(\$ 등)는 자동으로 생성되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는다.
- 5) 역환전 2개 이상의 현지화 사용 등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면 감사위원회로 문의한다.

2. 단기선교 회계서류 작성방법

1) 준비서류

- (1) 단기선교 지출내역 종합표
- (2) 단기선교 사역비 지급내역 및 잔액반납 확인서
- (3) 과목별 지출내역서
 - ① 준비비 사용내역서
 - ② 사역비 과목별 지출내역서
- (4) 과목별 지출내역 증빙 첨부서류

2) 서류 작성방법

(1) 단기선교 지출내역 종합표

사무국에서 받은 ‘단기선교 사역비 지급내역 및 잔액반납 확인서’를 기초로 작성한다.

① 적용 환율

가. US DOLLAR의 적용 환율 : 교회에서 수납한 현지 사역비(원화기준)를 실제 급받은 외화(US\$)로 나누어 소수점 둘째까지 반올림한 환율을 기록한다 (예: ₩1,036.86).

본 환율은 사역 후 사역비의 원화 환산 및 반납한 US\$의 원화 산출 시에도 적용한다.

나. 현지화의 적용 환율 : US\$를 각각의 현지화로 환전한 금액을 가중평균하여 기록한다.

선교회계 프로그램의 환전외화 입출금 Excel sheet에 해당 환전 내용을 기록

하고 자동으로 가중평균 환율이 산정된다.

환전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수수료를 차감한 실수령액이 환율계산의 근거가 된다.

두가지 이상의 현지 통화로 환전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되
가급적 사역국가 이외의 제3국(경유지국가)에서는 US\$로 사용하도록 한다.

② 수입과 지출

지출부의 US\$화 및 현지화는 각각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값을 낸 후 그 총계의 합이 수입부의 총계의 합과 일치하도록 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입과 지출의 원화합계액의 차액을 조정계정에 기록하되 + 또는 - 로 표기한다. 단, 그 금액은 외화의 원화환산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소액(100원 이내)이 되어야 한다.

(2) 단기선교 사역비 지급내역 및 잔액 반납 확인서

① 단기선교 사역비 내역은 사무국에서 사역비를 수령할 때 사무국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사역 후 준비비와 사역비 잔액을 사무국에 반납하고 받은 영수증을 ‘잔액 반납 확인서’ 아래 공란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사역 후 남은 현지화 및 US\$화는 그대로 사무국에 반납한다(재환전 불필요).

(3) 준비비

① 출국 전 공항에서의 식사는 준비비로 지출하되 반드시 원화로 지출한다.

② 준비비에는 귀국 리무진 비용을 포함하되 1인당 한도는 ‘공항↔교회’의 리무진버스 비용 범위 이내이며, 영수증을 첨부한다.

③ 개인용품(생필품, 필기구 등) 및 내구재 구입은 준비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과목별 지출내역서

① 숙박비, 식비, 기타급식비(간식비), 교통비, 기타 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지출내역을 기록한다.

② 상기 각 과목별 지출항목의 지출내역은 사용통화별(US\$와 현지화)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③ 식비는 ‘주·부식비’와 ‘기타급식비’로 나누어 기록한다.

주·부식비는 일자별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 기록하되, 보고서 작성 시에는 해당란에 ○표로 표시하고, 기타급식비는 일자별로 간식, 식수, 과일 등으로 기록한다.

④ 교통비계정에는 기사, 조수 등에 대한 일체의 부대비를 포함하되 팁은 제외한다.

⑤ 기타계정은 최소로 하고 선물구입비, 입장료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관광장소나 향락장소에서의 선교 금지).

(5) 환전 내역표

① 사역지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한 내역을 각 일자별로 기록한다.

출국전 미리 환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급적 시내 국내거래은행에서 환전한다(공항에서의 수수료가 10%이상 비쌈).

환전은 현지실정에 맞게 하되, 적절한 금액을 1~2회 정도 내에서 하고, 한 번에 너무 많은 금액을 환전하여 나중에 재환전을 하거나(재환전에 따른 환차손), 너무 소액으로 수차례 환전함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환전한 영수증은 잘 보관하여, 서류제출 시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6) 과목별 지출내역 증빙서류

- ① 지출내역 증빙서인 영수증은 각 과목별, 일자별로 A4 용지에 붙여 제출한다.
- ② 한 개의 영수증에 2개 이상의 과목이 같이 병기되어 발급된 경우에는 영수증을 표기과목 수만큼 복사하여 각 과목의 지출 증빙으로 사용한다(형광펜으로 표시).
- ③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팀장이 결재한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작성 완료된 서류는 팀장, 총무, 회계의 서명 후 2부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 선교위원회에 제출한다(감사위원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치면 선교위원회로 송부한다).

3) 단기선교 사역비 지출에 대한 지침

- 1) 사역비는 사역국가의 최근 물가현황 등의 현지사정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각 국가별 사역비 평균금액보다 높게 정한 것이므로, 선교팀은 최대한 절약하여 사용하고 잔액은 교회에 반납하도록 한다.
- 2) 예비비는 사역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별도의 우발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는다. 단, 긴박한 사정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귀국 후에 사용내역에 대하여 선교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5 의료

● 의료의 역할 : 선교위원회의 방침과 팀장의 지시를 따라 의료업무를 담당한다.

1. 말라리아

- 1) 원인 :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되었을 때에 증상이 나타난다.
- 2) 증상 :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지 1주일 이상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증상은 몸살과 발열이 나타나며, 말라리아 발작인 고열과 오한이 반복된다.
- 3) 예방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예방약으로는 라리암이 있다.
- 4) 약(라리암) 복용 시 주의사항
 - (1) 간 질환이나 정신 질환 치료 경험자, 이 약에 과민반응 있는 자는 복용을 금한다.
 - (2) 총 2정을 수령하여 출발 전 1정, 현지에서 1정 복용한다.
예전에 복용경험자는 출발 1주 전에 1회만 복용한다.
 - (3) 이 약을 복용하였다고 말라리아 감염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으므로 저녁 외출 시에는 반드시 밝은 색 긴 팔 옷과 긴 바지를 입어야 한다.
 - (4) 벌레 퇴치 로션을 노출 부위에 반드시 바르시고, 가능하면 모기장이나 모기향을 사용하도록 한다.
- 5) 기타 : 귀국 후 말라리아 감염이 의심이 되는 사람은 의료선교부로 방문한다.

2. 여행지 설사

- 1) 원인 : 여행지에 따라서 음식과 물이 새롭게 바뀌므로 설사의 증상이 흔하게 일어난다.
- 2) 진단 및 치료 : 설사가 생기면 제일 먼저, 심한 설사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치료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하루에 설사가 1~3번 정도면 경도의 설사라고 하고, 6번 이상 설사를 하거나 피가 섞인 설사를 하거나 고열(38도이상)이 나면 심한 설사라고 한다. 낫선 음식물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설사는 대개 경도의 설사이다.
 - (1) 경도의 설사 치료 : 경도의 설사는 하루에 1~3번 정도 설사를 하는 것이므로 탈수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설사 질환에서 탈수가 생기는 정도는 4-9% 정도이므로 대부분의 설사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고 단지 불편할 뿐이다. 따라서 탈수보다는 여행일정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설사를 빨리 멈추려고 지사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 (2) 심한 설사의 치료 : 심한 설사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사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때는 항생제도 복용해야 한다. 과거에는 수분을 정맥 주사로 보충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요즘은 물과 전해질에 포도당을 섞어 마시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설사로 나올 것은 나와도 마시는 것은 계속 흡수할 수 있어서 탈수로 사망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물 한 컵에 전해질 물질로 패디라산한 봉지를 타서 복용함으로 탈수를 방지할 수 있다.
- 3) 기타 : 여행 중 설사를 했던 사람이라면 귀국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증상은 없어졌어도 균이나 기생충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3. 항공기 기내에서

- 1) 원인 : 비행기 여행에서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내린 상태로 오랫동안 있게 되므로 피가 위로 올라가지 못해 정상인이라도 어느 정도 다리가 붓게 된다.
- 2) 예방 :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다리를 가능한 올리고, 앉은 상태로 발목과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한 시간 정도마다 복도를 걷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노인 경우는 유의해야 하며, 하지정맥류가 있는 사람은 탄력 스타킹을 신는 것이 좋다.

4. 개에게 물렸을 경우

개에게 물렸을 때는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고, 광견병은 잠복기가 2개월이므로 귀국 후에 의사와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5. 상처 및 타박상 대처

- 1) 골든타임 : 상처는 6-8시간 내에 치료하여야 심각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 2) 복부 타박 시는 간, 비장 출혈여부 및 복막염의 확인이 필요하다.

6. 신종 인플루엔자 및 독감 예방

- 1) 기내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 2) 손을 자주 씻고 기침하는 사람과의 접근을 금지한다.
- 3)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수면을 취한다.
- 4) 발열과 기침 등의 감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상비약품을 복용한다.

7. 참고사항

- 1) 본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평소 치료 받고 있는 병원의 스케줄대로 필요한 약물복용이나 조처를 계속한다.
- 2) 의료 선교부에서는 선교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는 질병과 건강관리에 대해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므로 의료선교부에 가서 상담 받도록 한다.

Ⅱ. 단기선교 숙지 사항

1. 파송 전 준비

1. 금요집회 파송식(파송, 귀국)에는 전 팀원이 집회 전 1시간 전까지 참석한다.
(오후 6:00까지 지정석에 착석하도록 하고 파송 팀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함)
2. 전도지 외에 다른 물품이나 선물은 지참하지 않는다. 특히 주일 헌금을 제외한 한국 음식이나 카메라, MP3, 신용카드, 휴대폰, 전도용 선물 및 개인 비상금은 가져가지 않는다.
3. 전도지는 출발 2 주전까지 수령하며(교부시간 : 주일 10:00~14:00) 현지에서 추가로 구입하거나 제작하지 않는다. 사역 중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수정하여 선교위원회에 제출한다. 전도지 배포가 어려운 국가 및 지역은 최소한의 수량만 지참한다.
4. 준비비는 파송 인원을 중심으로 8명 이하는 ₩200,000, 9명이상은 ₩300,000을 지급하고 4차 심사 합격 후에 수령 가능하다. 팀 훈련 시 식비, 간식비 항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나, 각종 문구류, 이른 시간 및 늦은 시간 출발 관계로 공항에서 부득이 한 식사 식대, 귀국 시 리무진 버스 또는 벤 등의 기타 이동 비용의 지출이 가능하다(영수증 필히 첨부).
5. 사역비는 사역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고, 최종심사 합격 후 파송 전 주일에 팀장이 직접 사무국에서 수령하며, 팀장 재량 하에 최대한 절약하여 사용한다. 사역비는 분산하여 보관한다.
예비비로 팀장이 원할 경우 각 팀에 \$500을 지급할 수 있다. 긴급사항 발생 시 사용가능하고, 사역 후에는 반드시 교회에 반납한다(사용시 감사 전에 선교위원장의 확인 받을 것).
6. 의약품은 출발 2주전에 제1교육관 2층 의료선교부에서 수령하고, 미사용 의약품은 귀국 후 의료선교부 또는 선교위원회에 반납한다(교부시간 : 주일 15:00~16:00).
동남아 지역 선교팀 중 말라리아 약을 복용해야 되는 지역은 반드시 파송 2주 전에 수령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복용한다(총 2정 수령하여 출발 전 1정, 현지에서 1정 복용). 예전에 복용경험자는 출발 1주 전에만 1회 복용한다.
7. 파송 시 검소하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한다(샌들, 치마, 화려한 액세서리 및 복장 지양).
8. 현지 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지역은 간이 영수증 용지를 선교위원회에서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가급적 현지에서 금액을 기록하여 현지인의 서명을 받는다.

2. 파송 예배

1. 파송예배는 항공기 출발 시간에 따라 오전 출발 팀은 5시간 전, 오후 출발 팀은 6시간 전에 드리고, 정확한 시간은 선교위원회에서 통지한다.
2. 파송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한다. 새벽기도회 전에 출발하는 팀은 선교위원회가 정한 시간에 자체 기도회로 선교를 준비하고, 새벽기도회 후에 출발하는 팀은 자체 기도회 없이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되 지정석에서 예배를 드린 후 파송예배에 참석한다. 그 이후 시간의 출발 팀은 파송예배 1시간 전에 모여서 자체기도회로 선교를 준비한다.
(교회 출발 : 오전/항공기 출발시간 4시간 전, 오후/항공기 출발시간 5시간 전)
3. 파송예배는 기도 동역자와 소속 교구 및 부서 성도들도 함께 동참하여 은혜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4. 전도지는 사전에 인수하여 분산하여 개인 집에 심되, 각자의 집은 기내소지 가능범위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짐은 팀별로 구분이 가능한 리본을 부착하여 출발 예배 전에 미리 버스 및 승합차에 실어 예배 후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항에서 Boarding 수속 시 한사람이 일괄 처리하도록 하여 짐이 분산되지 않도록 한다.

3. 현지 사역 중

1. 아침 경건회, 저녁 평가회, 수요일예배는 ‘선교 만나’를 활용하여 드리고, 반드시 선교구호를 제창한다.
2. 주일예배는 팀장 주관 하에 본 교회 예배에 준하여 자체적으로 드리고(교회 주보를 이용하여 주일 설교말씀을 기준으로 진행), 헌금은 모아서 팀장과 회계 담당자가 금액을 확인한 후 밀봉하고, 금액을 기록한 후 서명한다. 귀국 후에 주일헌금 계정으로 헌금창구(본당2층)에 헌금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계 보고 시 첨부 한다.
3. 사역 중 선교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긴급 상황이 발생 할 경우에만 하고 개인 전화는 철저히 금지한다. 파송 전에 예약된 출발 팀은 기사 전화번호 및 숙소 전화번호를 미리 선교위원회에 통지한 후에 출발한다. 인천공항에 귀국할 시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선교위원회에 귀국보고를 한다.
* 선교위원회 직통전화 : + 82-2-567-9544
4. 같은 국가에 2개 팀 이상 동시 출발하는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부터 각 팀별로 행동한다(숙소, 식사, 차량 등).
5. 가급적 숙소를 옮기면서 사역하지 말고, 해당국가 수도는 경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소나 사역지로 정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사역지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팀장의 판단으로 하되, 선교위원회에 사후 승인을 받는다.
6. 현지에서 통역자 및 안내자 사용을 금지한다.
7. 현지에서 선물이나 기념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8. 팀장은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9. 현지 선교사와의 접촉과 현지교회 방문을 삼가하고 어떤 경우라도 교회이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10. 환전은 낭비가 없도록 적절히 하고, 사용하고 남은 현지화는 교회 사무국에 반납한다.
11. 회계보고는 매일 평가회 시 회계가 보고한다(당일 사용금액 및 잔액 등).
12. 외선부 학생들의 부탁이나 현지교포의 부탁은 사절한다.
13. 운전자에게 팁을 주거나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14. 선교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개인 활동을 삼가하고 선교에만 전념한다.
15. 사역 중 복음송을 자제하고 찬송가를 부르며, 사역현장에서는 찬송가를 보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찬송가만 부른다(한국어 찬송도 가능).

<지정곡 목록>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221장 주 믿는 형제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254장 내 주의 보혈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93장 오 신실하신 주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국가별 잘 부르는 찬송가>

몽골	180 하나님의 나팔소리
	183 빈들에 마른 풀 같이
CIS	171 하나님의 독생자
중국	324 예수 나를 오라 하네
	384 나의 갈길 다가도록
스리랑카	531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인도네시아	180 하나님의 나팔소리
인도	298 속죄하신 구세주
방글라데시	288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네팔	
베트남	288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캄보디아	252 나의 죄를 씻기는
미얀마	505 온 세상 위하여
태국	620 여기에 모인 우리

16. 현지에서는 안전에 유의하고, 숙소로 돌아온 후 외출을 금지하고, 외출 시에는 2인 이상이 항상 동행하며, 비상연락망 및 여권사본을 항상 휴대한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고 물은 구입한 생수만 마시며, 음식은 가능한 한 날것을 먹지 않는다. 개나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특히 인도 등 우측행들 국가에서의 보행주의).
17.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필히 현지경찰 또는 병원의사의 진단서, 영수증, 사고 경위서 등을 작성해 오도록 한다.
18. 영문이나 한글 해박이 가능한 사람의 E-Mail주소를 받아온다(통신선교로로 지속적 양육 예정 / E-Mail 주소 사역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

4. 귀국 후

1. 귀국보고자 : 선교위원회에서 지명한 보고자는 귀국보고를 준비한다(p 참고).
2. 팀장 : 팀장 면담을 준비한다(p 참고).
3. 총무 : 사후 평가를 준비한다(p 참고).
4. 서기 : 서기 보고를 준비한다(p 참고).
5. 회계 : 회계 보고를 준비한다(p 참고). 선교비 및 예비비 잔액을 선교위원회에 반납한다.
6. 의료 : 사용 후 남은 의약품을 의료선교부에 반납한다.
7. 전원 : 귀국보고 시(금요일집회) 모두 참석한다. 주일 4시 선교기도회에 3회 참석한다.

2013년도 CMTC 계획표

1. CMTC 1차 시간표

시 간	훈련내용	담당자
18:15~18:25	오리엔테이션	훈련분과장
18:25~18:40	선교 정책	선교위원장
18:40~19:20	선교 사명	선교지도목사
19:20~19:50	팀 선교	진행분과장

2. CMTC 2차 시간표

시 간	훈련내용	담당자
18:15~18:25	오리엔테이션	훈련분과장
18:25~19:00	찬양과 율동	찬양팀
19:00~19:30	팀 선교	진행분과장

제3장. 영성 훈련

제1차.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1.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향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겹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1:1-9)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베다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밤과 그 전날 밤을 이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요 12:1, 마 21:17). 그날 아침 눈을 뜨면서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세상에 알리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주님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두 제자를 이웃 마을에 보내시며 그곳에 매향 나귀 새끼를 풀어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5절).

1. 메시아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온 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과 주위를 둘러싼 허다한 무리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9절)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에 기록된 것과 같이 주님의 혈통이 마침내 인정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자신의 왕국에 입성하면 길거리에 사람들이 줄을 이어 서서 이를 축하했습니다. 대개 왕은 화려하게 장식된 백마를 탔고, 군병과 신하, 군악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왕의 행렬은 아주 천천히 움직였고 사람들은 왕의 입성을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예루살렘 입성은 자신이 만왕의 왕임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과(마 2:11)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동들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경배하러(눅 2:11,12,20) 온 이후로 주님의 왕권은 비밀리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를 향해 메시아라고 외치며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서면서 예배당에 올려 퍼지는 찬송을 들을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환영합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구원을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호산나”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호산나”는 헬라어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시 118:25)라는 뜻의 히브리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나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각자의 신앙고백을 말해봅시다.)

2. 겸손하신 예수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행렬은 다른 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주님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둘러싼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라 주님이 지극한 애정으로 돌보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두 사람도 있었습니다(마 20:29-34).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꽃다발 대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신들의 겹옷을 길에 퍼서 예수님이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주님의 행렬은 진심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왕답지 않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렬이었습니다. 초라한 행렬이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순식간에 수백만의 천사들을 불러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은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마 23:37). 예루살렘의 사악한 교만, 위선,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세상적인 부유함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하늘의 부유함은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마음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나눔 당신은 능력의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겸손하신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3. 갈보리의 예수님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면 주님을 둘러썬 가난한 자들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께 모든 것, 즉 마음, 옷, 소유물 전체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이었고 따라서 주님께도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위로와 이해를 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았는데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주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찾지도 않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눔 당신도 갈보리의 예수님처럼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예수님은 메시아,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과 다르게 겸손한 왕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왕이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이 끝나면, 예루살렘 백성들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여러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꺼이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메시아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1~2)

그리스도인의 육체와 성령은 항상 서로 대적하여 싸웁니다.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 신자들은 이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자유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 잘 해내고 올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행복과 성공, 그리고 온갖 축복들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사실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며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 이상 율법에 의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은총은 놀라운 것들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어떠한 것들을 보증해 주니까?

1.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보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신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율법과의 싸움이 결국 우리의 승리로 끝이 날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힘겨운 싸움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싸움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24~25).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통해 우리의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7~18).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승리의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총을 거절한 자들은 계속 정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19은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나눔 당신의 모든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2.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더 이상 율법에 의해 구속받지 않음을 보증해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2~4). 그리스도의 은총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1~2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에 반대하십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마 23:13~15). 예수님은 여러분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에 의한 삶은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립니다. 바울은 이같이 설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율법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지적해줄 뿐이지 여러분을 구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나눔 당신도 종교적 행위와 열심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3.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보증해 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0~11).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면 성령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율법을 그리스도의 은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로마서 8:35~39은 그리스도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영원한 연합이 보증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나눔 당신이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율법 아래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약속들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과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총 가운데 보장해 주시는 것들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은총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확실한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아멘.

제2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1. 주님께 순종하는 선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행 8:26)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비로소 교회는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박해도 더 거세어졌습니다. 스테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이방인들이 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의 전도는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믿기지 않는 이적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으로 하여금 중풍병자와 앉은뱅이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물결이 최고조로 달해있는 찰나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8:26)고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받는 곳, 곧 자신의 구원 사역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지역을 떠나, 인적조차 드문 황량한 광야길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부르심이었습니다. 빌립은 기회로 가득 찬 곳,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곳, 가능성조차 희박한 곳, 어쩌다 사람 하나라도 만나게 되면 정말 다행이라고 여겨지는 곳으로 가야했습니다.

1.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다.

빌립은 천사와 성령으로부터 어디로 가야할 지에 대해서는 지시를 받았지만, 왜 가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12:1). 히브리서 11장 8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빌립 모두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지 지시하셨을 뿐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빌립은 큰 도시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모든 일이 척척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 빌립에게 그곳을 떠나 광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기꺼이 두말 않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시는데 왜 굳이 그곳에 가야 하는지 의아해하는 빌립의 심정이 충분히 짐작가지 않습니까?

나눔 요즘 주님이 당신에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

빌립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순종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빌립에게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일어나서 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광야든, 감옥이든, 심지어 사자굴이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러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았습니다(마4:19-20). 행함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야 합니다. 빌립은 청종했습니다. 그는 가사 길로 갔고, 지시하신 그 병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홀연히 자신을 이끌고 가시도록 맡겨드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분명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떠났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지만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을 놓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나눔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3.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 세계 곳곳으로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되 망설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고, 자신의 사고방식 따위는 접어둔 채 떠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이고,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빌립은 왜 이토록 감격스러운 부흥의 현장을 떠나야 하는지, 그것도 광야로 가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지 결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만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다 깊은 곳으로 이끄시든, 해외로 나가라고 명하시든, 하늘 끝까지 가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은 던져 버리십시오. 우리의 사랑과 힘, 능력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주님은 자신을 부르는 자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 주십니다!

나눔 당신이 십자가 앞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4.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말씀만으로 땅을 지으셨습니다. 정말이지 주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분의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수없이 보여 줍니다. 주님은 빌립과 어부들, 세리, 일곱 귀신들린 한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 빌립은 지시대로 광야길로 내려가 한 병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구약성경을 읽는 중이었습니다. 빌

립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십니까?”라고 묻자,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빌립을 병거에 올라오라고 청했습니다. 이 모든 된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 빌립이 성령을 좇아 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빌립은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고국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눔 순종을 통하여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을 어디론가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일어나서 간다면, 여러분 또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석 같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설 명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뭐라고 지시하시는 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분명한 방향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가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2.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선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4~11)

오늘날 교회는 증인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관심을 두고 행하는 대부분의 사역은 어떤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 일뿐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속적인 교회들은 증인의 사명보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에 염려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증인의 사명을 제쳐두고 있습니다. 진실로, 대부분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사명은 예수님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증인이 될 때

무슨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지금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회복시키실 때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행 1:6). 예수님이 승천할 것을 알았던 제자들은 두려웠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막 그들을

떠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회복되는지를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행 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역사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특정한 날에 재림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을 믿었던 무지한 사람들은 직업과 소유를 버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24:36 말씀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고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감추어진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지금이 무슨 시간입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시간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합니다. 지금이 무슨 시간입니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시간입니다. 매일 가까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눔 당신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2. 증인의 능력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 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2~4).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였음에도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전한 한 번의 설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 2:41). 더욱 놀라운 소식은 여기에 바로 그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모든 성도 안에 살아 계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전 6:19). 성령님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능력 안에서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은 증인들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또한 성경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함에도 복음전하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제발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성령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눔 당신이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능력)은 무엇입니까?

3. 증인의 주인

누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으로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 승천하셨고 이제 곧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9~11). 예수님은 진

실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실한 일꾼들에게 상 주실 주님이십니다.

나눔 당신의 삶과 사역의 주인은 누구 입니까? 주님입니까 자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시작하십시오. 구주께 순종할 때 성령님은 도우실 것이며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입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님이 참 빛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